

# 현안과 과제

- 한·중 수교 22주년 의미와 협력과제

## 1. 도약하고 있는 한중 관계

- 한중 수교 22주년이 되는 올해는 시진핑의 방한 등 양국간 경제협력뿐 아니라, 정치·외교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는 '정온경열(政溫經熱)'의 시대로 진입
-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상호보완적 선린우호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단계로 도약
  - 중국은 1972년 중미·중일 국교정상화 및 1978년 개혁개방 선언이후 제3국을 통한 무역을 확대해 나가는 등 한중 수교의 초석 마련
  - 1983년 8월에는 중국 민항기의 한국비행정보구역 통과 승인을 계기로 체육·문화·이산가족 방문 등의 비정치적인 영역에서의 교류를 점진적으로 진행
  - 1992년 8월 24일에 한국은 중화민국(대만)과 단교하고 한중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중국과 정식으로 수교
  - 그 뒤로 양국은 22년간 경제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더불어 정치·외교 분야에서도 소통을 강화하는 협력파트너십 강화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
- 더욱이 올해 7월 시진핑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등 한중 경제의 질적 발전 추진
  - 한중 양국은 정치·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 대폭 강화하여 지역정세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
  - 또한, 경제·통상 분야에서의 양적·질적 발전과 더불어 양국 국민 간 교류의 확대 등을 통해 양국관계를 긴밀하게 발전시키기로 하였음

<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 변화 >

구분	양국 관계	의미
수교초기 (1992~1997)	상호보완적 관계 및 선린우호 관계	- 신뢰, 평등, 호혜원칙의 외교관계 수립 - 경제통상, 문화교류 시작
발전단계 (1998~2007)	협력적 동반자 관계 및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	- 지속가능한 공동운명체 건설 - 경제협력 강화
건고화단계 (2008~2012)	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	- 경제협력뿐 아니라 안보, 외교, 정치, 문화 등 방면에서 협력파트너십 구축
도약단계 (2013~현재)	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강화	- 경제의 질적 발전 도모 - 정치 및 외교적 소통 강화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정리.

## 2. 한·중 경제협력 현안

### ① 교역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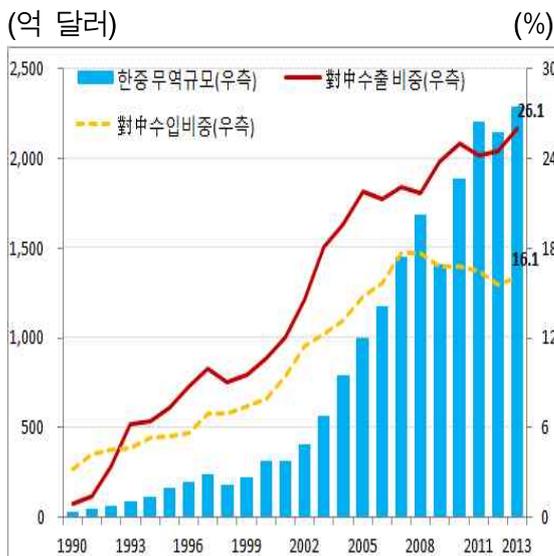
○ 한국의 對中 무역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

- 한·중 수교 이후, 양국 간 무역규모는 연평균 약 19%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
  - 1992~2013년 사이, 양국 간 무역규모는 수교 당시의 64억 달러에서 2013년 2,289억 달러로, 약 36배 증가
  - 동기간, 한국의 수출 및 수입 총액 중 對中 비중은 1992년의 3.5%, 4.6%에서 2013년 26.1%, 16.1%로 대폭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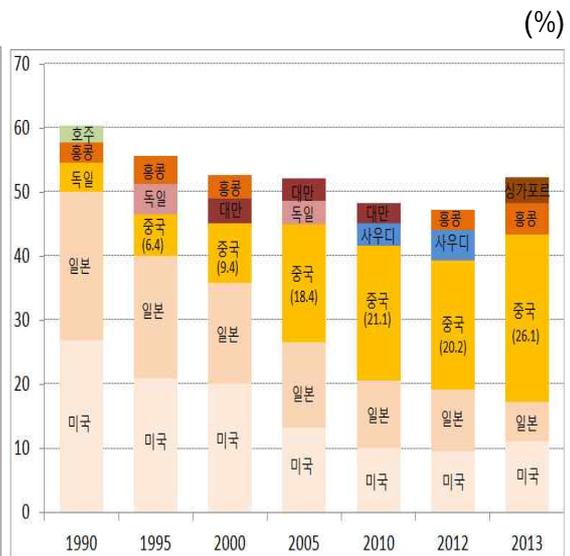
-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

- 한국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.1%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 26.1%로 확대되면서, 중국이 1990년 7위 교역 대상국에서 2004년부터는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
- 동기간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10위 교역 대상국에서 4위로 부상

< 한국의 對中 교역 추이 >



< 한국의 상위 5개 무역국 추이 >



자료 :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. 자료 :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.

② 수출 및 투자의 고부가화 가속

○ 한중 수교이후 지난 22년간 한중간 교역 품목은 섬유 등 저부가 산업 중심에서 반도체 등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

- 한국의 對中 수출 품목은 철강, 섬유 중심에서 반도체 등 첨단 제품 중심으로 전환
  - 1992년 철강판의 수출규모는 4.2억 달러로 對中 수출품목 중 1위를 차지
  - 반면, 2013년에는 반도체가 가장 많은 약 217억 달러를 기록, 전체 對中 수출규모의 약 15%를 차지

< 한국의 對中 주요 수출품목 >

(단위 : 억 달러)

순위	1992년		2000년		2013년	
	품목	금액	품목	금액	품목	금액
1	철강판	4.2	석유제품	16.8	반도체	216.7
2	합성수지	3.0	합성수지	15.8	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	185.6
3	선재봉강 및 철근	2.4	전자관	12.3	합성수지	77.3
4	가죽	1.4	철강판	11.0	전자응용기기	78.8
5	인조섬유	1.3	가죽	7.6	석유제품	83.8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주 : 품목분류는 MII 3단위 분류 기준임.

- 한국의 對中 수입 품목은 식물성 물질, 섬유, 시멘트 등 원료 중심에서 반도체, IT기기 등 첨단 제품 중심으로 전환
  - 1992년 식물성 물질의 수입 규모가 약 7억 달러로 對中 수입품목 중 1위를 차지한 반면, 2013년에는 반도체의 수입규모가 약 65억 달러로 가장 많음

< 한국의 對中 주요 수입품목 >

(단위 : 억 달러)

순위	1992년		2000년		2013년	
	품목	금액	품목	금액	품목	금액
1	식물성 물질	6.6	의류	8.7	반도체	65.2
2	원유	2.2	컴퓨터	8.2	컴퓨터	54.0
3	인조단 섬유직물	2.2	석탄	7.2	철강판	40.6
4	시멘트	2.1	식물성물질	6.9	정전(static electric) 기기	39.0
5	석탄	2.1	반도체	6.3	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	34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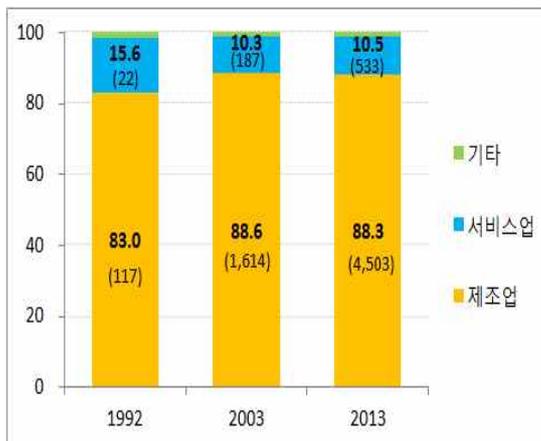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주 : 품목분류는 MII 3단위 분류 기준임.

- 한편, 한국의 對중국 직접투자도 전기전자·반도체, 금융·보험업 등 고부가 업종으로 빠르게 재편
  - 한국의 對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투자가 지속
    - 2013년 현재, 한국의 對중국 투자 중 제조업 비중은 약 88%로 지난 1992년과 비슷한 양상이 지속
    - 반면, 서비스업은 동기준 1992년 약 16%로 2013년 약 11%로 소폭 하락
  - 하지만, 산업별로 볼 때, 한국의 對중국 제조업 투자는 전기전자·반도체, 자동차 등 고부가 산업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
    - 전기전자·반도체 부문의 對중국 직접투자는 1992년 1,700만 달러에서 2013년 31억 1,392만 달러로 지난 22년간 약 190배 급증, 전체 제조업 중 비중도 14.5%에서 69.2%로 급증
    - 동기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투자도 632만 달러에서 4억 7,643만 달러로 대폭 증가
  - 더욱이 중국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함께 한국의 對중국 도소매 및 금융 산업 직접투자도 크게 증가
    - 한국의 對중국 서비스산업 직접투자는 지난 1992년 2,221만 달러에서 2013년 현재 5억 3,333만 달러로, 지난 22년간 약 24배 증가
    - 특히, 서비스업 대비 금융·보험 산업 투자 비중이 2003년부터 20%대로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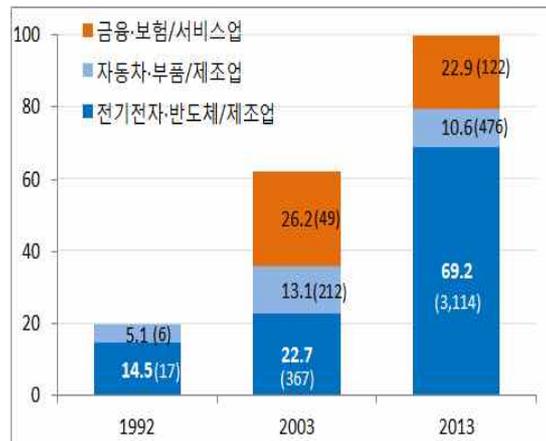
< 한국의 업종별 對中 투자 추이 >

(%)



< 주요 산업별 對中 투자 비중 >

(%)



자료 : 한국수출입은행.

주 : 1. ( )는 백만 달러 기준 투자액.

2. 기타 산업에는 건설업, 광업, 농림수산업 포함.

### ③ 금융통화 협력 강화

○ 최근 양국은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였으며 양국간 원화·위안화 활용 등 금융·통화 협력도 강화하는 추세

- 최근 한국은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금융·통화협력을 강화

· 지난 2008년 12월 중국과 1800억 위안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였고, 2011년 10월 3,600억 위안으로 재연장을 합의

· 이에 따라, 한국은 홍콩에 이어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협력을 통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강화

- 더욱이 총수출 중 對中수출 비중도 20%를 상회하는 등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부상하면서 양국간 무역에서 원화·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 실질적인 금융·통화협력도 강화

·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서 원화 결제비중은 2010년 0.8%에서 2014년 1/4분기 현재 1.7% 차지, 동기간 위안화도 0.2%에서 1.6%로 확대

· 對중국 수입에서도 원화 결제비중은 2014년 1/4분기 현재 1.4%, 위안화는 0.8%로 확대되고 있으나, 양국 간 무역규모에 비해 미약한 수준

< 중국의 주요 통화스와프 현황 >  
(억 위안)



자료 : 중국인민은행, 한국은행.

< 對중국 무역에서 원화·위안화 결제 비중 >  
(%, 십억 달러)

구분		'10	'11	'12	'13	'14
수출	원	0.8	1.1	1.0	1.5	1.7
	위안	0.2	0.6	1.0	1.6	1.6
수출총액		117	134	134	146	34
수입	원	1.5	1.6	1.4	1.4	1.4
	위안	0.1	0.2	0.3	0.7	0.8
수입총액		72	86	81	83	21

자료 : 관세청, 한국은행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.  
주 : 2014년은 1/4분기 기준임.

#### ④ 기술협력 강화

○ 지난 10여 년간 한중 기술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, 양국간 공동 연구 등 기술협력도 향후 증가할 것으로 기대

##### - 한중간 기술무역은 지난 12년간 12배 증가

- 한중간 기술무역은 지난 2001년 1억 9,200만 달러에서 2012년 22억 2,400만 달러로 약 12배 급증, 연평균 24.9%씩 증가
- 한국의 기술무역 총액 중 한중기술무역 비중도 2005년 5.9%에서 2012년 13.6%로 약 2.3배 증가

##### - 양국간 기술협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감소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

- 한중 기술협력은 1992년 체결된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시작으로 공동연구센터 구축, 기술조사단 파견 등의 형태로 교류 진행
- 특히, 한국의 국가간 협동연구 중 한중 협동연구 비중은 2005년 10.2%에서 2011년 6.4%로 지속 감소
- 다만, 한중간 협동연구 건수는 지난 2005년 39건에서 2007년 171건으로 급증하다가 2008년 130건수로 감소했으나, 2009년부터 지속 증가하여 2011년에는 186건으로 확대

< 한·중 간 기술무역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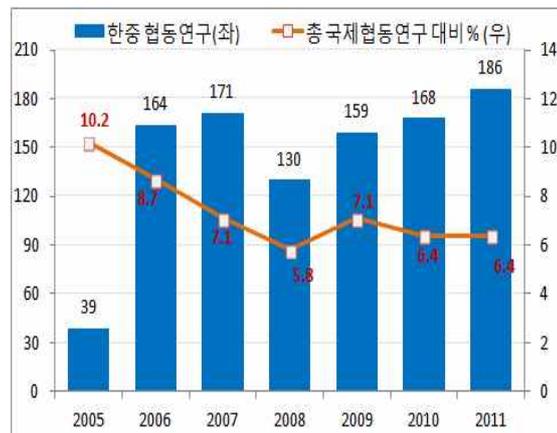
(백만 달러) (%)



자료 : 기술무역통계조사(2012), 미래창조과학부,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자료로 현경연 재구성.

< 한·중 협동연구 현황 >

(건수) 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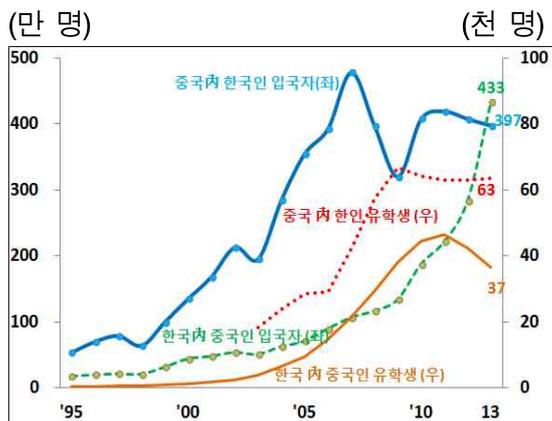
자료 : 국가R&D사업 관리서비스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.

⑤ 문화교류 확대 지속

○ 양국 간 인적교류도 한·중 수교 이후 87배 이상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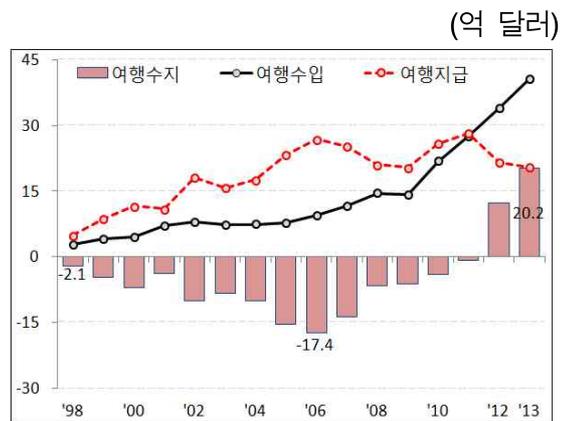
- 양국 간 인적교류 규모는 1992년 9만 명에서 2013년 789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
  - 2013년 기준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수는 397만 명,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수는 433만 명으로 집계됨
  - 2013년 양국 인적교류 규모는 1992년 수교 당시보다 87배 증가한 789만 명으로 나타났으며, 연평균 약 24%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
  - 더욱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제적 중국인 학생 수는 2005년에 9,000명에서 2013년 3.7만 명으로 4.1배 증가, 중국내 한국인 유학생은 동기간에 2.8만 명에서 6.3만 명으로 2.3배 증가
- 더욱이, 중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대중국 여행수입 증가로 對중국 여행수지가 2012년부터 흑자로 전환
  - 2013년 현재, 한국의 對중국 여행수입은 약 41억 달러로 지난 1998년 약 3억 달러에 비해 15배 급증
  - 이에 따라, 한국의 對중국 여행수지가 2012년부터 흑자로 전환, 2013년에는 20억 1,530만 달러의 최고 흑자를 기록

< 한·중 간 인적교류 추이 >



자료 : 한국관광공사 DB, CEIC, 교육통계연보, 중국고등교육학회, 교육부.  
 주 : 1. 국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고등교육기관 제적 중국인 수 기준(동포제외).  
 2. 중국내 한국인 유학생 수는 대학 이상 기준임.

< 한국의 對중국 여행수지 >



자료 : 한국은행.  
 주 : 여행수지 = 여행수입 - 여행지급.

○ 한편, 對중국 콘텐츠 산업의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, 중국내 한류효과도 대폭 확대

- 對중국 콘텐츠 산업의 수출과 수입 증가세 지속

- 한국의 전체 콘텐츠 수출 중 중국의 비중은 2010년 24.5%에서 2012년 27.6%로 증가
- 對중국 콘텐츠 수출은 2009년 5억 8,100만 달러에서 2012년 12억 2,900 달러로 약 2.1배 증가, 연평균 28.4%씩 급증
- 동기간 對중국 콘텐츠 수입은 1억 3,200달러에서 1억 7,000억 달러로 1.2배 증가
- 한편, 콘텐츠산업백서(2012)에 따르면, 2012년 현재, 한국의 對중국 부문별 문화콘텐츠 수출 중 게임 82.9%, 캐릭터 7.0%, 출판 3.1% 등으로 나타나면서 일부 문화 콘텐츠의 편중성이 심각한 수준

- 더욱이 중국내 한류의 영향도 지속적으로 확대

- 중국콘텐츠 산업동향(2012)에 따르면, 중국내에서 국가별 인기드라마 비중은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 16%, 미국 10%, 일본 7% 순으로 나타남
- 또, 중국내 국가별 인기 예능 비중도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은 16%로 대만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인기를 보임

< 對중국 콘텐츠 수출입 추이 >  
(백만 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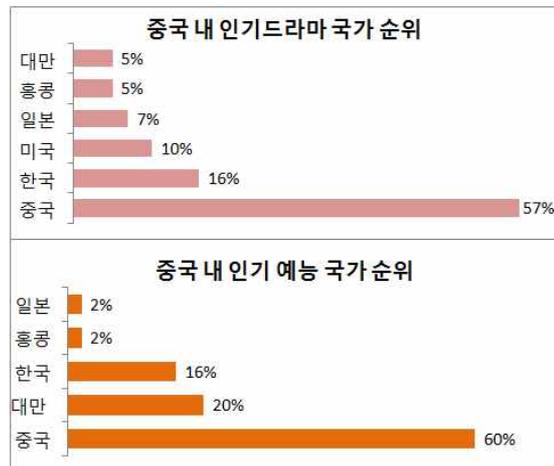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콘텐츠진흥원

주 : 1. 콘텐츠 산업은 출판, 만화, 음악, 게임, 영화, 애니메이션, 방송, 캐릭터 등으로 구성됨.

2. 홍콩을 포함한 통계치임.

3. 광고산업 제외.

< 부문별 대중 콘텐츠 수출 >



자료 :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중국콘텐츠산업동향 보고서 재인용.

주 : 2012년 기준.

### 3. 향후 협력과제 및 시사점

- 한중 양국은 향후 질적인 협력관계를 지속 이어가기 위해 경제, 산업, 금융 등 다각적인 협력이 예상된다
- (경제·통상) 우선 현재 추진 중인 한중간 FTA의 조속한 타결을 우선 과제로 삼고, 양국간 무역확대를 위해 교역제품에 대한 통관 기준 표준화 작업 및 통관절차 간소화 합의 등 노력이 필요
- (산업교류) 양국간 제조업 가치사슬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위한 공동의 산업 업그레이드 방안 모색
- (금융협력) 통화스와프 확대, 원-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등 기회 활용함과 동시에 금융협력회의 상설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양국간 금융협력체계 강화
- (기술협력) 상호간 기술인력 교류 확대,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공동연구도 진행 등 공동 기술협력 강화
- (문화교류) 온·오프 채널을 통한 양국간 문화교류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유학생 국내유치, 인력의 상호 교류 등 고급인력 교류 확대 방안 모색

< 한중 양국의 향후 협력과제 >

구분	협력 과제
경제·통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민감품목 산업보호를 원칙으로 한 한중FTA 조속 타결</li> <li>• 제품별 통관 기준표준화 공동작업, 상호간 통관절차 간소화 등</li> </ul>
산업교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양국간 제조업 가치사슬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위한 노력 강구</li> <li>• 고부가가치 제조업 투자 확대, 서비스투자 활성화 적극 모색 등</li> </ul>
금융협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통화스와프 확대, 원-위안 직거래 시장 활성화</li> <li>• 금융협력회의 상설 등 금융협력체계 강화 등</li> </ul>
기술협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호간 공동기술보호 협정 모색</li> <li>• 기초과학기술, 첨단제조업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진행 등</li> </ul>
문화교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온·오프 채널을 통한 문화교류 다각화 추진</li> <li>• 유학생 국내유치, 기술인력 교류 등 고급인력 교류 확대</li> </ul>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- 한중 양국은 협력속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對中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함
  - 첫째, 한중 FTA를 대비해 중국의 프리미엄 소비시장 개척의 새로운 로드맵 마련
    - 국내의 농축수산물, 일부 기계품목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막 설정을 전제로 한 한중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
    - 더불어, 중국의 고급식품, 가전 등 새로운 프리미엄 소비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 마련도 필요
  - 둘째, 제조업 기술 분야에서의 프론티어 연구를 적극 진행하여 산업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는 등 對중국 경쟁력 확보 노력도 필요
    - 협력속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기술의 프론티어 연구에 앞장서야 하며, 산업표준화를 위한 사전 작업도 필요
    - 또한 국내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중국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
  - 셋째, 중국 금융시장 개방화에 맞춰 對중국 금융진출 전략 수립 모색
    - 위안화 직거래 시장 건설을 조속히 진행함과 동시에 다양한 위안화 금융서비스 개발에 착수
    - 중국정부의 금융시장 개방 플랜을 적극 활용하여 향후 QFII, RQFII 등 자본시장 규제 완화에 따른 對중국 진출 확대 모색
  - 넷째, 문화 및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련분야 인재 육성뿐 아니라, 문화 서비스 구축도 필요
    - 중국과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위한 인재육성과 교류프로그램 마련
    - 더불어 국내 관광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전환을 위해 관광-휴양-의료 등을 연계한 융복합 서비스도 마련

미래연구본부 천용찬 연구원 (2072-6274, junius73@hri.co.kr)  
정민 선임연구원 (2072-6220, chungm@hri.co.kr)  
한재진 연구위원 (2072-6225, hzz72@hri.co.kr)